

수 학 보 고 서

소 속	경영대학 경영학과	
파 견 국 가	일본	
파 견 대 학	Jissen women's university	
파 견 기 간	시작	2024년 3월 27일
	종료	2024년 8월 7일

준비 과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 2학년때 교양을 들은뒤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것이 점점 재미있었고, 대학생때만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휴학을 한 뒤 1년동안 N2와 N1을 취득하였습니다. 언어 조건을 충족한 뒤 서류와 면접과정을 거쳐 교환학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학조건 짓센여대의 어학조건은 JLPT N1 70점 이상 소지자입니다. 즉 N1에 합격하지 않아도,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N1 합격 점수는 100점 이상입니다.) 이미 N2를 갖고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같이 파견이 되는 단국대에서는 N2 소지자여도 지원이 가능했으며 파견 전까지만 n1 70점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조건부합격이 가능했습니다. 명지대는 이러한 조건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짓센여대에서는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만약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교처 측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2023.09.08 공지) 합격을 하신다면 국제교류처 카페를 통해 준비 서류를 공지해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에 오류가 많았고, 직접 번역을 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꼭 꼼꼼히 체크하시고, 국교처나 짓센 담당자님께 메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coe 서류가 엑셀 파일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첨부링크를 눌러도 열리지 않아 문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의를 드리니 금방 새로운 링크를 보내 주셨습니다. 회신은 빠르고 친절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 진단 증명서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증명서는 반드시 병원 원장이 영문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가야합니다. 집 근처 병원에 전화를 돌리거나, 인터넷에 '유학

	<p>생 건강검진'이라고 검색하신 뒤 찾아가면 됩니다. 잇센여대의 건강 진단 증명서 양식은 흥부 x레이, 접종증명서 체크만 있었습니다. 타국에 비해 엄격하지 않아서 따로 피검사나 추가 접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mmr 주사의 1차 이력이 누락되어있어 병원 원장님이 괜찮냐고 질문을 하셨으나, 결과적으로 무탈하게 coe가 발급되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증명서 <p>잇센여대의 재정증명서 금액 기준은 한 학기 파견 50만엔, 1년은 110만엔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e, 입학허가서, 입국 지정일 도착 (2024.02.05) <p>잇센여대는 우편이 아닌 전자 coe를 발급해줍니다. 최근부터 실물 종이 coe가 아닌, pdf 형식으로 발급을 해주는 파견교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장짜리로 보내주신 pdf 파일 자체가 coe입니다.</p>
	<p>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일 지정 <p>기숙사를 이용하는 유학생들은 입사일을 지정해줍니다. 봄학기 입사는 3월 27일로 개강 2주 전쯤 입사였습니다.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지 마시고, 급하신 분들은 문의를 하시거나 공지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권 예매 <p>위탁 수하물은 30kg로 구매했으나 현장에서 추가결제를 했습니다. 미리 짐을 보내지 않는 분들은 넉넉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나리타공항에서 입사일에 기숙사는 17시 전 까지 도착하셔야 하며, 유학생끼리 저녁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물 <p>한국인들은 전 학기 유학생들이 물려주는 용품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단국대와 경인여대 파견생들이 블로그를 통해 연락이와서 미리 한국인 단독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국 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p> <p>특히 추천드리는 준비물은 멀티탭보다는 돼지코를 넉넉히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방에 일본 멀티탭이 있고 이동이 자유로워서, 한국 멀티탭을 무겁게 가져오는 것 보다는 돼지코를 여러개 가지고 오는 것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일본 돼지코가 비싸기도 합니다. 돈키호테에서 1개에 700엔이 넘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 어드레스 <p>기숙사 와이파이를 1인당 기기 3개까지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킹 방지를 위해 '맥 어드레스'를 공유기에 등록해주는 방식입니다. 출국 전에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맥 어드레스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잘 몰랐어서 잘못된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입사 첫날 와이파이 사용을 못했고, 등록도 다음날 해준다고 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시고 보내야합니다.</p>
<p>파견 학교</p>	<p>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픽업

짓센여대는 공항 픽업이 없습니다. 나리타공항에서 도쿄역까지 리무진 버스를 탄 뒤, 도쿄역 추오센을 타고 히노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히노역에서 15분 정도 언덕을 올라가셔야 하는데 짐이 많으면 정말 힘드니까 택시를 타시길 바랍니다. (약 600엔) 목적지로 기숙사를 말하는 것보다 짓센여대에 가달라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나리타 공항 : 야마토 택배 서비스

나리타 공항에 캐리어를 자택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도합 40kg가 넘는 짐을 양손에 들고 혼자 이동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공항의 야마토택배 카운터에서 큰 캐리어 1개를 기숙사까지 부쳤습니다. 가격은 무게에 따라 측정되며, 26kg에 2400엔 정도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이내로 발송하면 당일 도착하며, 그 외 시간대는 다음날에 도착합니다. 귀국할때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우 편했기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 오리엔테이션

첫 날 도착하면 국제교류추진과의 기숙사 생활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고 커튼을 닫니다.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스케줄이 나온 종이를 주셔서, 일정에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시약소도 알아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닛 별로 청소 일정이나 쓰레기 담당에 대한 규칙을 알아서 정해야 합니다. 일본인 리더가 정하거나, 선생님이 규칙 짜는 사람을 지정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꼼꼼하게 규칙을 정하고 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을 반드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공동생활, 청소, 소음 쪽에서 트러블이 많이 납니다.

수업 & 학교 활동

- 시간표

수업은 최소 10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유학생 필수과목은 3과목이며, 나머지 과목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시간표를 짭니다. 한 과목에 100분인지라 부담이 될수 있지만 저는 온라인 과목 3-4개를 섞어서 월금 공강을 만들어 개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온강 출석이나 과제는 코로나때에 비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어 과목도 부담감이 없어 추천드립니다. 유학생이 신청 가능한 수업 리스트를 보내주십지만, 실라버스에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수강이 가능한지 교수님께 연락 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표 제출과 주임교수님과 상담일정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짓센에서 보내주신 파일 내에서 신청했습니다.

히노캠퍼스는 식품영양학과, 유아교육과, 사회, 미디어 계열 학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경영대생이라면 아쉽게도 히노캠퍼스에는 경영 관련 과목이 많이 없습니다. 미리 전공학점을 꽤 채운 분이라면 마음 편하게 좋아하시는 과목을 들으셔도

됩니다만 저는 전과생이라 한개라도 경영 전공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도 다 적어서 주임교수님께 이수학점 상담을 했으나, 경영보다는 사회나 미디어계열 과목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공 과목으로는 '마케팅론(온강)' 1학점만 들었습니다.

시부야 캠퍼스에는 국제학부, 비즈니스 학부, 문학부(일문과/영문과/미술학) 등이 있고 시부야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영어, 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학생 이벤트도 시부야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부야 캠퍼스 수업과 히노 캠퍼스 수업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저는 시부야 캠퍼스 수업을 듣지 않고 공강을 만들어서 따로 약속을 잡는 식으로 시부야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시부야 수업을 듣는 겸 일본인친구와 밥을 먹는든지 등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시간표를 짜면 될것 같습니다.

(* 시부야 캠퍼스에서는 들을만한 과목이 많이 없었습니다. 잇센이 보내준 파일 외에 시라버스를 보고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업 난이도**

N1 청해보다 현지인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강의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가끔 한국은 어땠냐는 질문을 많이 듣기도 하기 때문에 수업에 잘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 수업은 소수이므로, 본인의 참여도에 따라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이 기본적인 수업 태도는 명지대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장 폭, 인간관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험 난이도**

일본은 중간고사가 거의 없으며 기말고사의 비중이 50%를 이룹니다. 한자를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험 걱정을 많이 했으나, 기본적으로 레주메(강의자료)와 필기자료 지참이 가능했습니다. 지참이 불가능하다는 공지가 없다면 오픈북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아이패드나 아닌 공책필기를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패논패 산정 방식이므로, 공부량은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에서의 반의 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F는 확실하게 논패스이지만 D도 논패스로 간주할수도 있다고 들어서(교수 재량) C이상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국 만큼의 학업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생활했기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 **유학생 행사**

시부야 캠퍼스에 국제학부가 신설되어, 2024년부터 많은 유학생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4번 이상의 교류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베큐파티, 시부야&시모키타자와 투어, 글로벌웨이, 중고생 대상 부스 등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정말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사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이나 유학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많으며, 적극적이고 귀여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연령대는 보통 그 해 신

	<p>입생들이 주를 이루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 <p>일회성 만남이 되느냐 아니냐는 본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바, 유학생들은 멀리 살기도 하고, 바쁠까봐 먼저 권유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유학생은 바쁜 이미지가 있나봅니다) 그러니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일본 친구에게 먼저 권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 카페클러치 & 회화파트너</p> <p>짓센여대의 유학생 활동 중에 카페클러치와 회화파트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페클러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며, 회화파트너는 1:1로 한달에 한번 이상 만남을 가지는 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했던 학교 프로그램이었으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회화파트너는 파트너가 한국에 관심이 있는지 영어에 관심이 있는지도 랜덤일 뿐더러, 단순 장학금이 목적이거나, 소극적인 친구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맞는 회화파트너를 만난 유학생들도 있으니 본인 판단 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카페클러치는 유학생 행사 참여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2025년부터 변경예정인 기숙사가 아닌, 기존의 기숙사를 설명하겠습니다.</p> <p>2025년부터 기숙사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변경되는지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바로 앞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며, 총 4개의 유닛, 1인 1방 (총5개)으로 구성된 유학생 기숙사입니다. 구성원은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네덜란드인, 한국인이며 각 유닛마다 최대한 1:1:1:1의 비율로 배정됩니다. 기숙사는 세탁기가 낡은것 빼고는 넓고 쾌적했으며 요리하기도 생활하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현관에 신발장, 우편함, 택배박스가 있으며, 자리를 비우더라도 택배함에 보관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이불과 베개는 전부 다 있으므로, 커버만 구매하시면 됩니다.</p> <p>유학생들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청소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면대와 욕실 청소 방법, 바로바로 머리카락 치우기 등등 기본적인 위생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 트러블을 겪은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
<p>주변 환경</p>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 히노역</p> <p>짓센여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할 지하철역 이름은 '히노'입니다. 기숙사와 학교까지는 도보 15분정도 소요됩니다. JR츄오센이 다니며, 중앙특급으로 신주쿠 까지 30분, 도쿄역까지 1시간, 시부야/하라주쿠 또한 열차에 따라 50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히노역 근처에는 기본적인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이제리아, 마츠야, 맥도날드, 마츠키요, 캔두, 마네키네코, 토리키조쿠 등)은</p>

	<p>거의 존재합니다. 도토루나 스타벅스같은 카페는 아쉽게도 히노역에는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근처 <p>히노역에서 15분 정도 올라오면 학교와 기숙사가 위치합니다. 이 근처는 식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오타' 라는 마트를 자주 이용하며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편의점은 자전거로 6분 정도 로손과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전거로 15분 이동하여 이온몰 도요타점의 스타벅스나 코메다커피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기숙사쪽은 도보로 잠깐 다녀오기에는 애매한 위치가 많습니다. 일본은 자전거 타기에 정말 좋고 자동차의 속도도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연습해오셔서 생활반경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p> <p>또한 히노역 바로 다음 역인 '타치카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꽤 발달한 베드타운입니다. 도심 급으로 거의 다 있고 신주쿠/시부야 만큼의 번잡함이 하나도 없어서 애정했던 동네입니다. 히노역과 한 정거장이라 부담도 적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루미네 백화점, 이치란라멘, 공차, 메가돈키호테를 자주 갔습니다. 타치카와에 쇼와기념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는데 정말 넓고, 피크닉, 불꽃축제, 단풍 명소이니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 분위기 <p>히노는 조용한 동네이고 기숙사가 여대 앞 주택가에 위치하며, 여학생 기숙사라는 것이 이 근방에 노출되어 있기에, 치안은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학생 기숙사 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4개월 동안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도촬, 속옷 도난). 짓센 측에서는 경찰 연계를 바로 도와주시는 등의 신고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호신용품을 소지하시거나 일본 경찰 번호 (110)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위와 동일</p>
<p>비 용</p>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명지대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입니다.</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기숙사 비용은 한달에 5만엔입니다. 따로 관리비는 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국 전에 입금할때는 5개월치인 25만엔을 송금하기 때문에, 퇴실시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환불해 줍니다. 저는 3만엔 정도를 출국 전 환불받았으며, 짐 보내는 비용이나 교통비 등에 썼습니다. (기숙사비를 환불받으려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연금 <p>한 학기에 건강보험료 4300엔 + 연금 1000엔 납부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비

	<p>교재는 메루카리에서 중고 구매하여 2천엔 이하로 썼습니다. 필기가 되어있어도 수업에 크게 상관 없었습니다.</p> <p>- 장학금 수령 6개월 파견인 경우) 명지대 70만원(계좌), 잇센여대 5만엔 현금 지급 1년 파견인 경우) 명지대 140만원 (계좌), 잇센여대 10만엔 유초은행 계좌 지급</p> <p>생활비</p> <p>식비는 30만원, 교통비 10만원이라고 잡는다면 기본 생활비는 5-60만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핫플만 아니라면 외식이나 마트 물가는 저렴합니다.</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은 130만원 입니다. 쇼핑을 자주했으며 매달 여행을 다녔습니다.</p>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p>휴학 1년을 해서라도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교환학생 기간 동안 취업에 대한 고민과 조급함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불안감을 묻어두고 생각해 보면 먼 훗날의 내가 교환학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이 아니었다면, 학생 신분으로 학교 보호 아래, 내 또래들과 기숙사가 있는 곳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일본에 살 기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나 자신의 장단점을 알기도 했고, 미숙했던 일본어로 용기를 내 보기도 하고, 타국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얻었습니다.</p> <p>사실상 엄청난 것을 얻어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견문이 엄청 넓혀진다거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던가 등의 환상을 갖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 사귀 친구들과 추억 쌓고, 일본 생활을 경험하는 정도의 목표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생활해본다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잔잔하고 조용한 생활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활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까울 것 같다면 비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활하면서 배우고 싶은 문화도 많았고, 스스로 고쳐야할 모습도 많이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의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면서의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p> <p>후회하는 점이 있다면 귀찮아서 여행을 더 많이 다녀오지 못했던 것, 한국인에게 너무 의지해서 일본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지 못했던 점이 후회됩니다.</p> <p>추가적으로, 잇센여대는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3-4명 정도 매학기 꾸준히 파견되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단국대 교환학생 카페 후기를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명지대에서 잇센여대로 파견되는 후배가 있다면 직접 도움을 드리고싶으니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1030jde@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p>	
사진 첨부 (최소 5장)	

[별첨] 수학보고서





